

# 디카시의 복제물

JUNG-SU KIM 22/08/16 21:48

## 예시

동작구라떼 하나요  
휘핑크림 가득요  
아! 입술에 묻지 않는 휘핑크림으로요

-김남은, 「동작구라떼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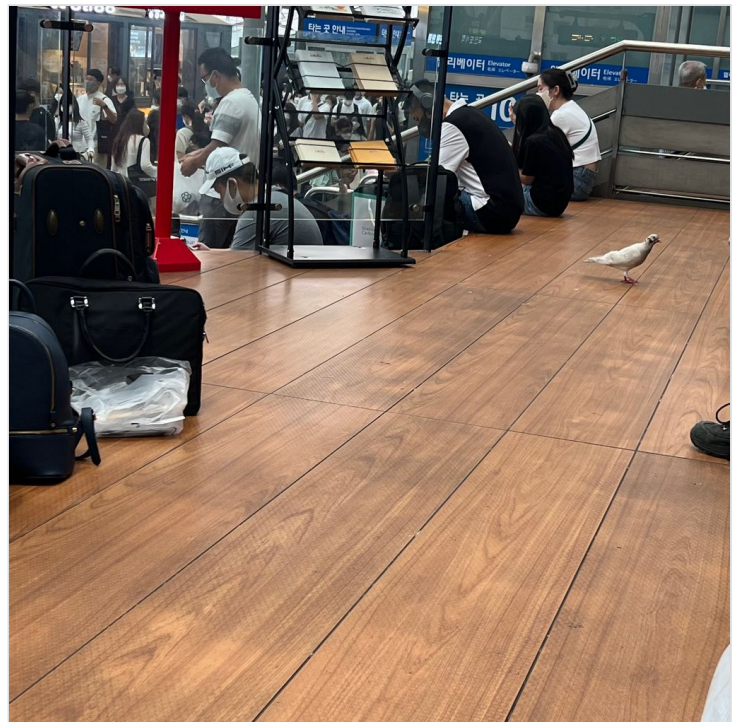
태양의 세밀하고 정교한 시공으로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합니다  
파도로 인한 반짝임의 미세 위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
우수한 반사광으로 몸에 착용하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

-김남은, 「주얼리 Sea」



용기를 내어 도착한 곳  
생각보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 
나의 관심은 오직 빵 부스러기

-김남은, 「후회없는 용기」



# 1반

## 1103 김정현

그때의 우린 너무나도 찬란했고  
그때의 우린 너무나도 어여뻐다  
무수히 많은 계절이 흘날리고  
무수히 많은 시간이 녹는데도  
우린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린 우리와 함께 빛이 되어

-김정현, [빛바랜 시간속 멈춰선 우리]



## 1120 홍은지

해가 내게 내민 길  
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 
일단 발걸음은 떼본다

- 홍은지 '기회를 잡는 방법'



오래된 자리  
오래있던 자리  
그사이에 이나간 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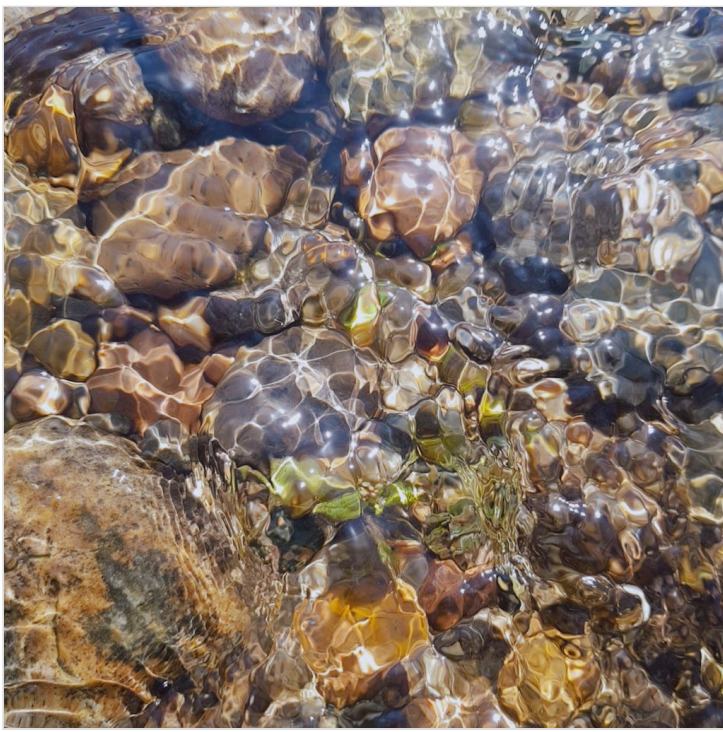
그어느사람 하나 기댈수도 없는  
그자리 묶여  
갈 곳 없는 자리

-김지찬, [이나간 자리]



너는 날 어지럽게한다  
크고  
차갑고  
단단한

-안초연 [블록렌즈]



## 박나현

예쁘게 반짝이는 바다  
하지만 모래는 반짝이지 않는다  
하지만 이 길이 반짝이는 바다로 가는 유일한 길이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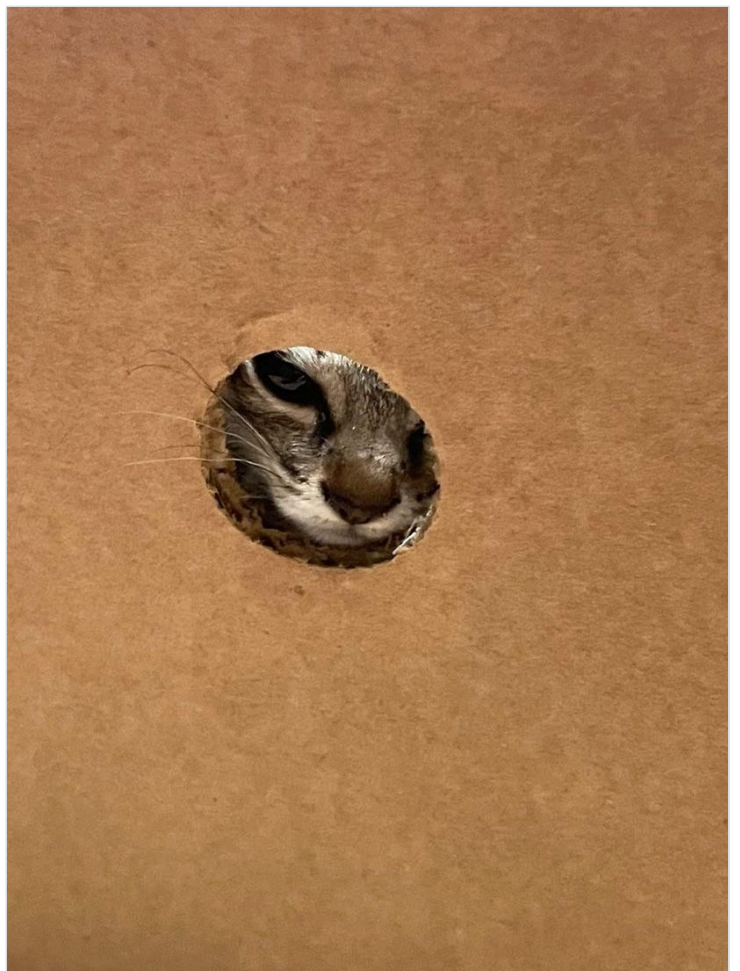
박나현(바다로 가는 길)



## 너의 세상

너가 보던 작디 작은 구멍으로  
너가 그리던 그 꿈보다  
훨씬 큰 세상을 볼 수 있길

-변하연,(너의 세상)



너무 귀엽다  
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

백서현,냥줍



니가 선택한 이문이다  
약으로 깡으로 버텨라  
이승원, 「개학」



## 1118 지예원

혼자 떨어져 나간 구름  
외로운 구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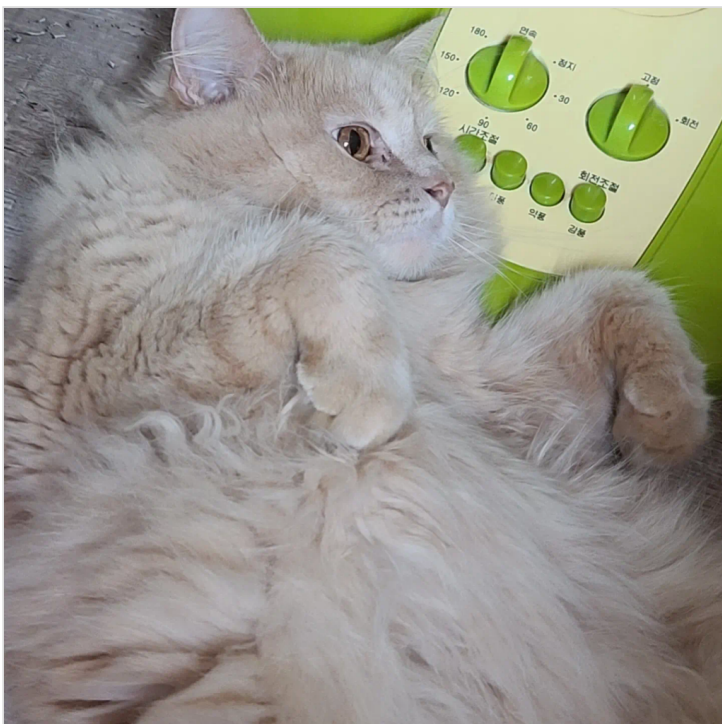
-지예원, [구름 혼자]



## 그눈빛

매일 하염없이 어딘가를 쳐다보는 그 눈빛  
어딜보는지 모르겠고 그방향을 같이봐도  
무엇을 보는지 모르겠는 그 눈빛  
무언가 비어있는것같은면서도 맑은 그 눈빛  
그냥 쳐다보기만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 눈빛

이세인, <그 눈빛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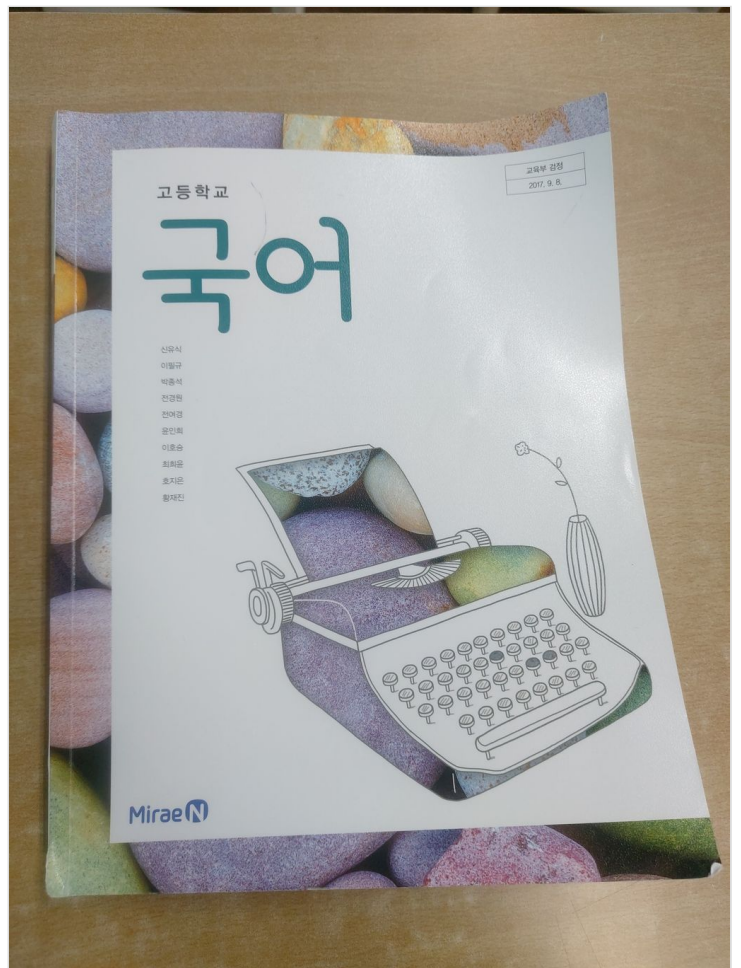


## 김도연

비가 오고난 후 아무일 없다는듯  
자기 할 일을 하는 이쁜 하늘  
자기한테 관심 달라는뜻인가?  
김도연-노을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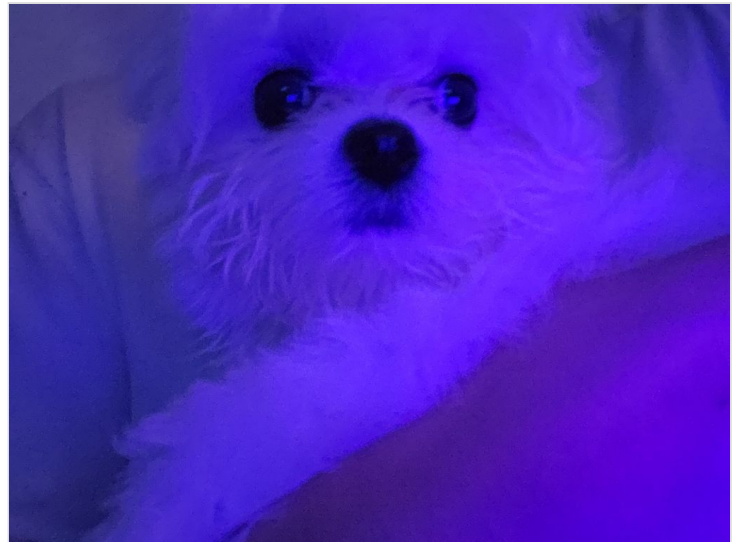


나의 친구  
 방학 끝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 
 다시 만날 만나야하는 친구  
 -김재웅 (싫은 친구)



먹고 싸고 자기만 한다  
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 
 다음생엔 개로 태어나야지

-윤준호, [개]



내가 무서운건지 만만한건지  
 계속 쳐다보는 너,  
 나는 너가 무섭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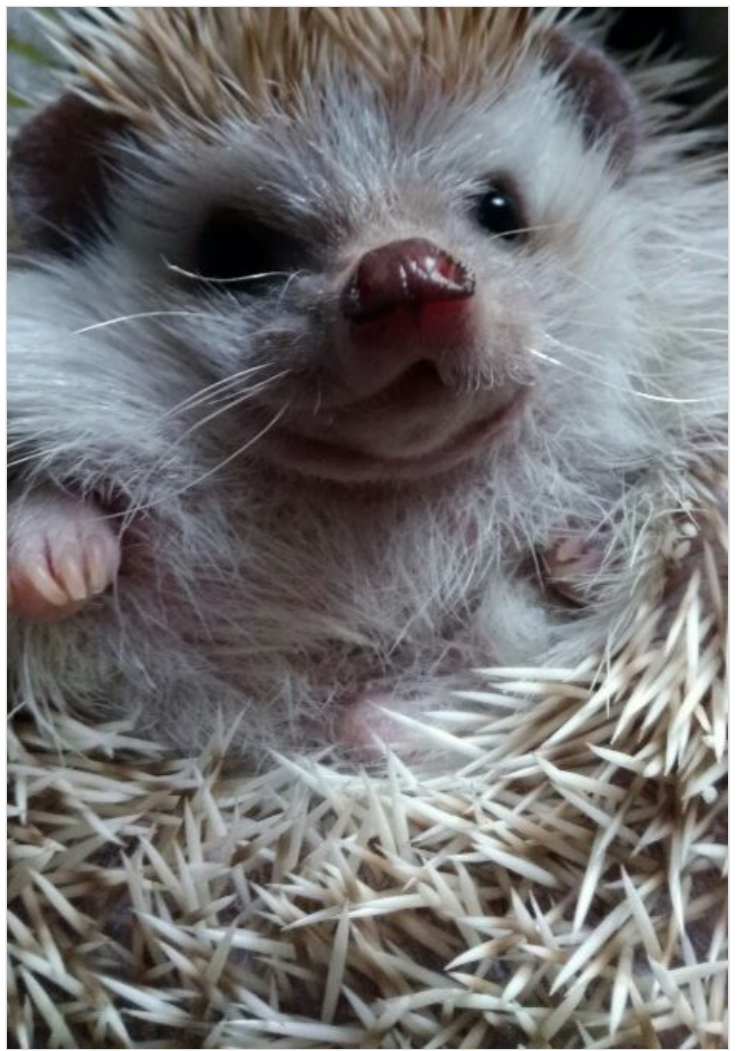
-윤택상, [눈싸움]



## 한이슬

너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지  
하지만 결국 떠나갔어  
너는 아니?  
너의 죽음을 발견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....

한이슬-행복 슬픔 미안함-



## 2반

---

## 3반

---

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 
차가운 흰 눈이 내리고 시린 바람이 불어도

따뜻한 함박눈으로 받아드리자  
붉고 따뜻한 우리의 추억 속 겨울이 되기 위해서

최준현, <따뜻한 겨울>



어쩌다 마주친  
새하얀 강아지  
  
김민주 [개 좋아]



**남해정**  
사람들의 관심을  
한몸에 받기위해  
나도 나름에 관리를 한다  
남해정 - 멋쟁이 고양이 -



덥고 습하지만 푸른 하늘과 초록빛도는 풀이  
보기좋다  
김윤서 (푸른하늘)



떨어져버린 앞  
떨어져 버린 앞도 떨어지지 않은 앞도 다 아름다운데

왜 너는 떨어지려 하는가  
이예성, (두가지 모습)



## 1307 박소현

집 학원 집을 반복하다가 나에게 재미를 준 할머니집  
방학마다 한번씩가면 힘들어하는마음이 치유되는할머니집

박소현 할머니집



## 이채이

얌얌얌 맛있다~~~  
더 없나요?

배고프다 「이채이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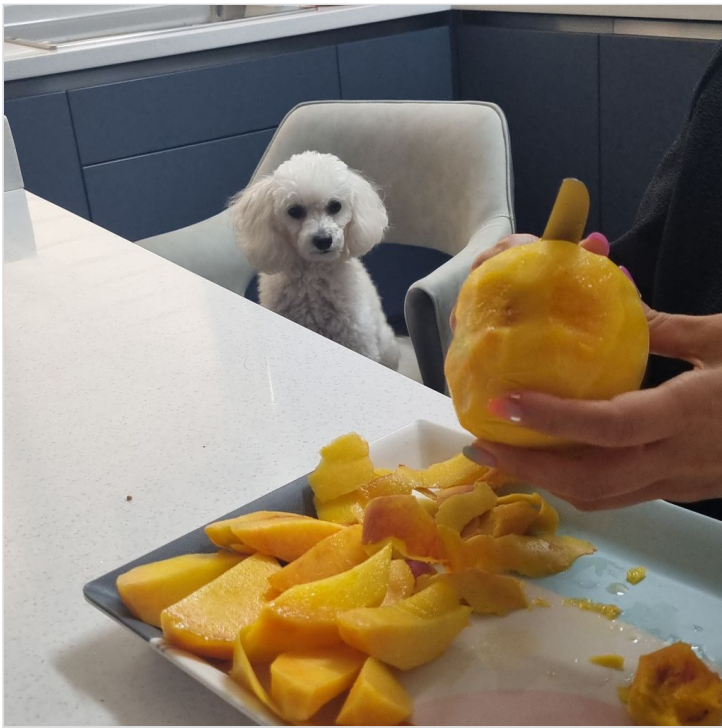


## 1305남궁예담

저게 내 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.🐾  
엄마가 나한테 복숭아를 주면 좋겠다.🐾  
나도 먹고싶다.🐾🐶

-남궁예담 [강아지 시점]-





마려우면 마음껏 싸라  
 똥은 크면 클수록 아름답다  
 귀엽고 커다란 똥



### 1316 정소연

엄마가 까준 복숭아  
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 
 매일매일 먹고싶다

-정소연,[보살핌]



### 1317 정재량

실패해서 못먹었던 연어.  
 역시 요리는 굳이해서 망하면 안된다.  
 절대 식초의 담그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맙시다.

정재량 『식초 싫어 짠거 싫어』



심심하다  
 나가서 놀고싶지만 너무 덥다  
 고경우 (여름 방학)

### 딩 1302 김용우



## 4반

---

## 5반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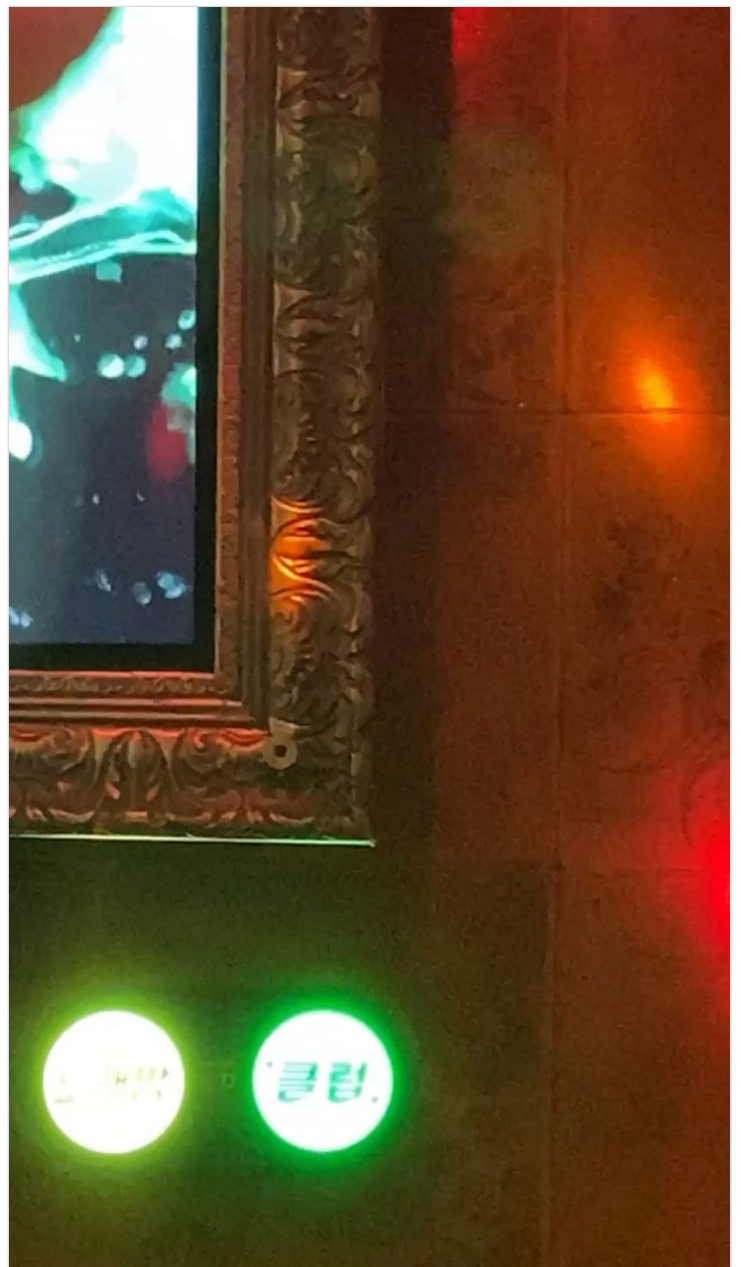
강같은 바다  
물안개같은 구름  
조명같은 배

오지석 (제주도 바다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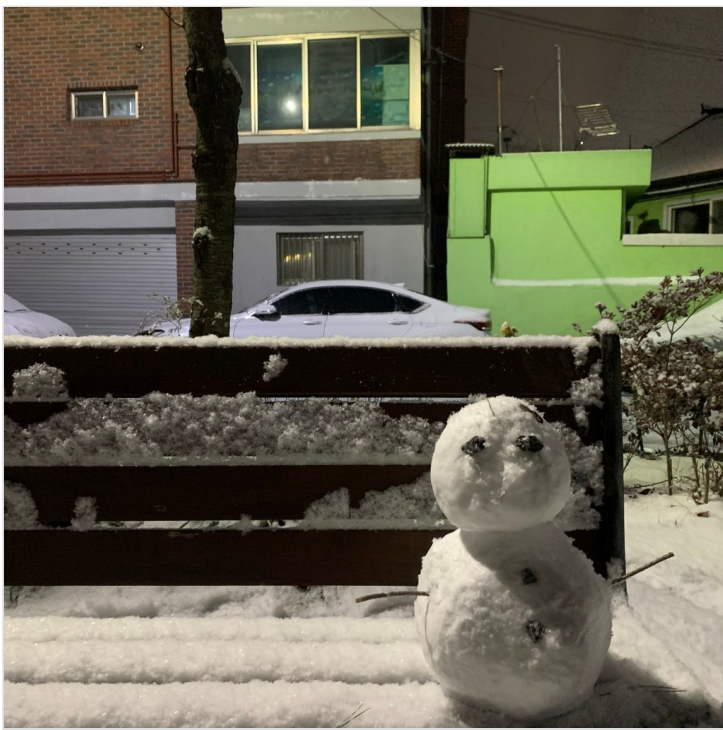
나도 몰랐다

박지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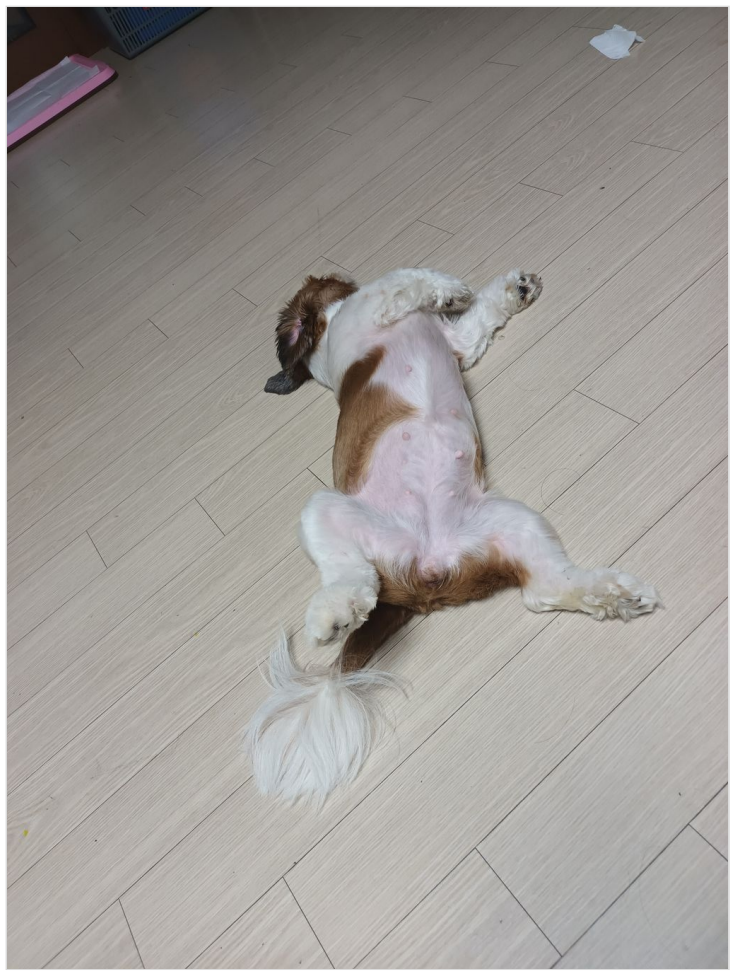
벤치에 앉아있는 눈사람  
다음생엔 나랑 친구하자

-김혜린- [친구]



## 황서현

하늘에 핀 팝콘  
하늘에서 내리는 팝콘  
먹지 않았지만 맛있다



하늘 위로 떠있는 구름  
그 사이로 보이는 선들  
하늘 위에 떠있는 기타  
눈을 감으니 들리는 기타의 노랫소리

-이혜진, [기타의 노랫소리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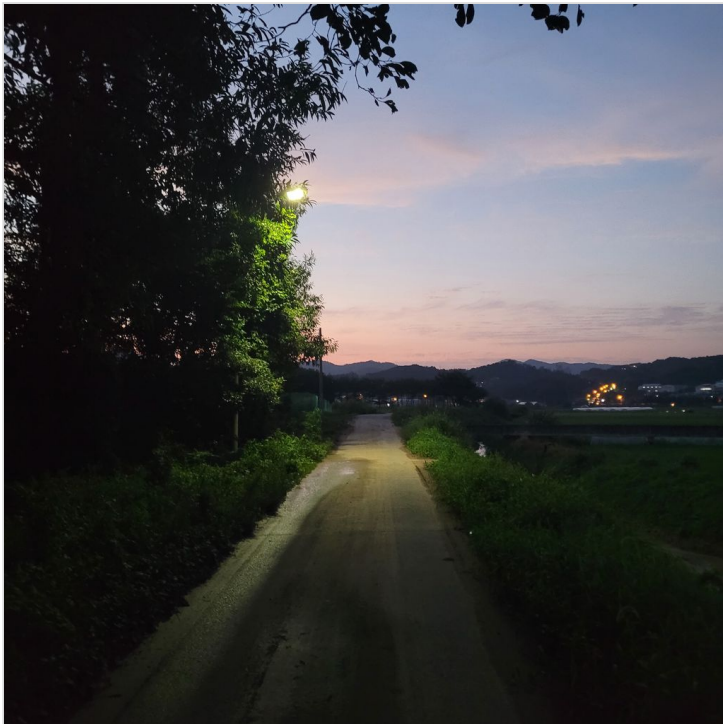


## 1516정민음

죽었니 살았니  
사람이니 강아지니



혼자 길을 묵묵히 밝혀주는 가로등  
뒤에서 항상 밝혀주시는 부모님과 같이  
묵묵히 나의 길을 응원해주시는 나의 부모님  
-김미애 (나만의 가로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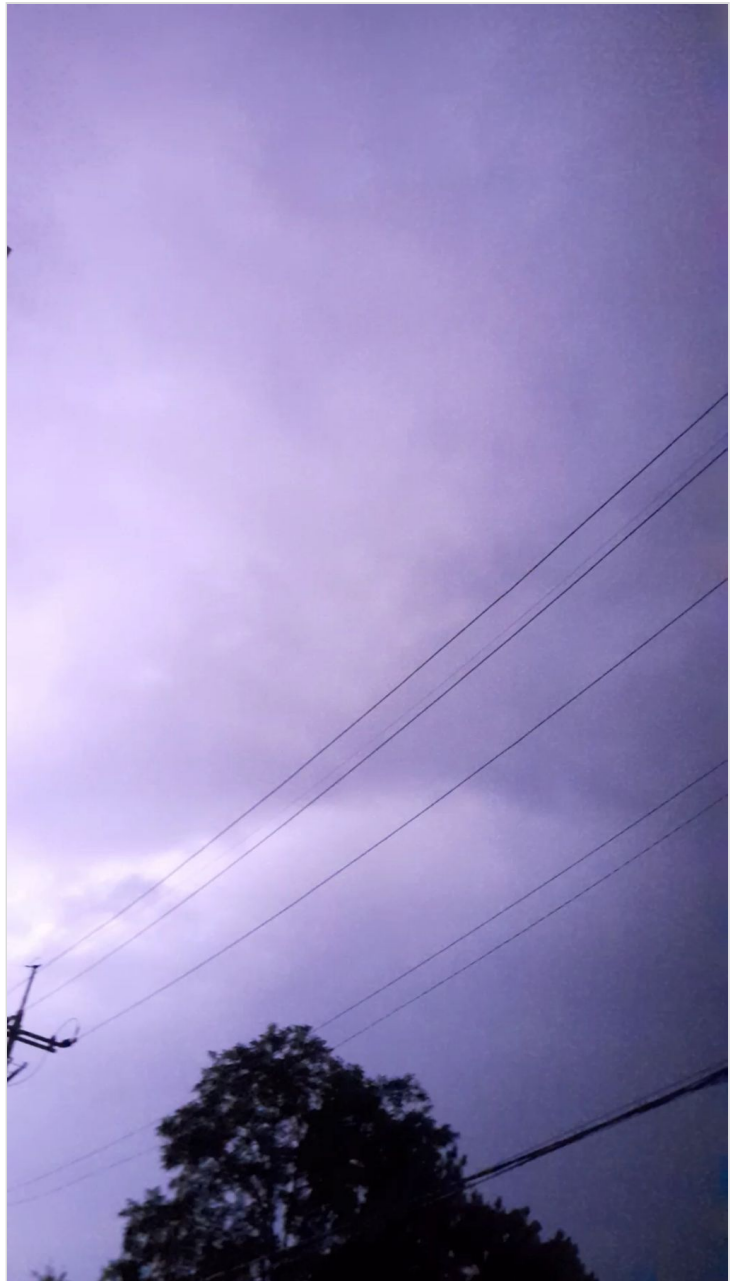
익숙함에 속지 말자  
익숙함 속에 빛이 있다

-정초혜[빛]



깜깜한 새벽1시 누구보다도 빠르게 세상에서 내려와 온세상을 빛추고 떠나는 또 다른 하나의 빛

-손준- (또다른 빛)



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다  
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 
그런데 내가 뭐하려고했었더라?

우희찬 검색



나를 유혹하는 빨간색 마라탕 그것에 빠져든다

최현석[마라탕 먹지마라탕]



가방에 들어가서 행복한 너  
나 대신 학교 갈래?

-박아영 (학교 가는 아옹이)



우연히 발견한 초록색 하트  
국밥이 나에게 고백을 한다

-박다원 [초록 하트]



# 6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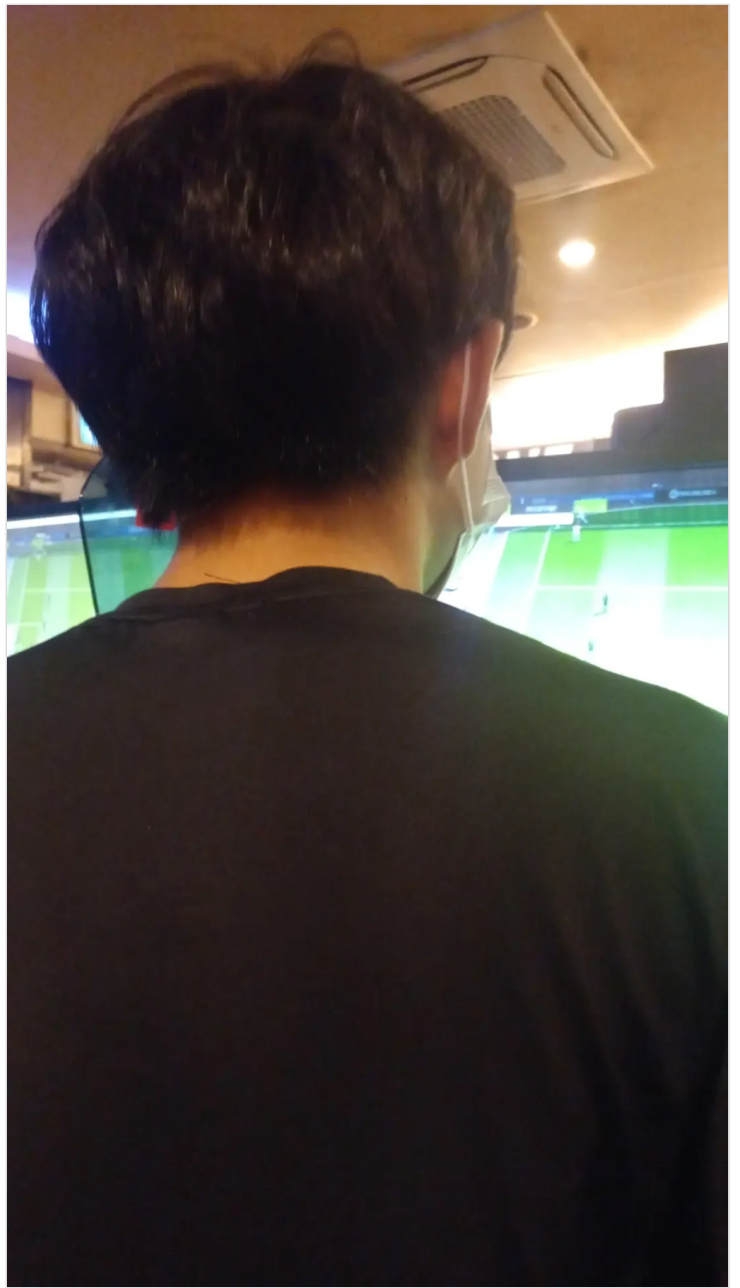
커다란 죠스바  
머리위에 죠스바  
하늘을 나는 죠스바

전주성 (죠스바)



넓은 등과 어깨 이 남자 멋있다 피파의신  
그와 닮고 싶다

정수혁[피파의 X신]



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 
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 
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 
-이화경- [지금 나의 마음]



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초록 용암  
아니면 반짝거리는 녹빛 바다

조서현, 메론소다



## 허다영

취소된 콘서트  
2일 전에 취소된 내 심정을 다들 알까  
줄 그어져있는 예매번호가 가슴을 후벼판다  
희"비"교차 -허다영-

## 취소내역



단독

### NCT DREAM TOUR 'THE DREAM SHOW2 : In A ..

고척스카이돔 ▶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매번호  | <b>Y2876418653</b>      |
| 예매자   | 허다영                     |
| 예매일   | 2022.06.29 20:02        |
| 관람일시  | 2022.07.31 18:00        |
| 취소일시  | <b>2022.07.29 12:44</b> |
| 좌석(1) | 지정석 T07구역 A열003번        |
| 티켓수령  | 배송<br>- 수령인:<br>- 배송지: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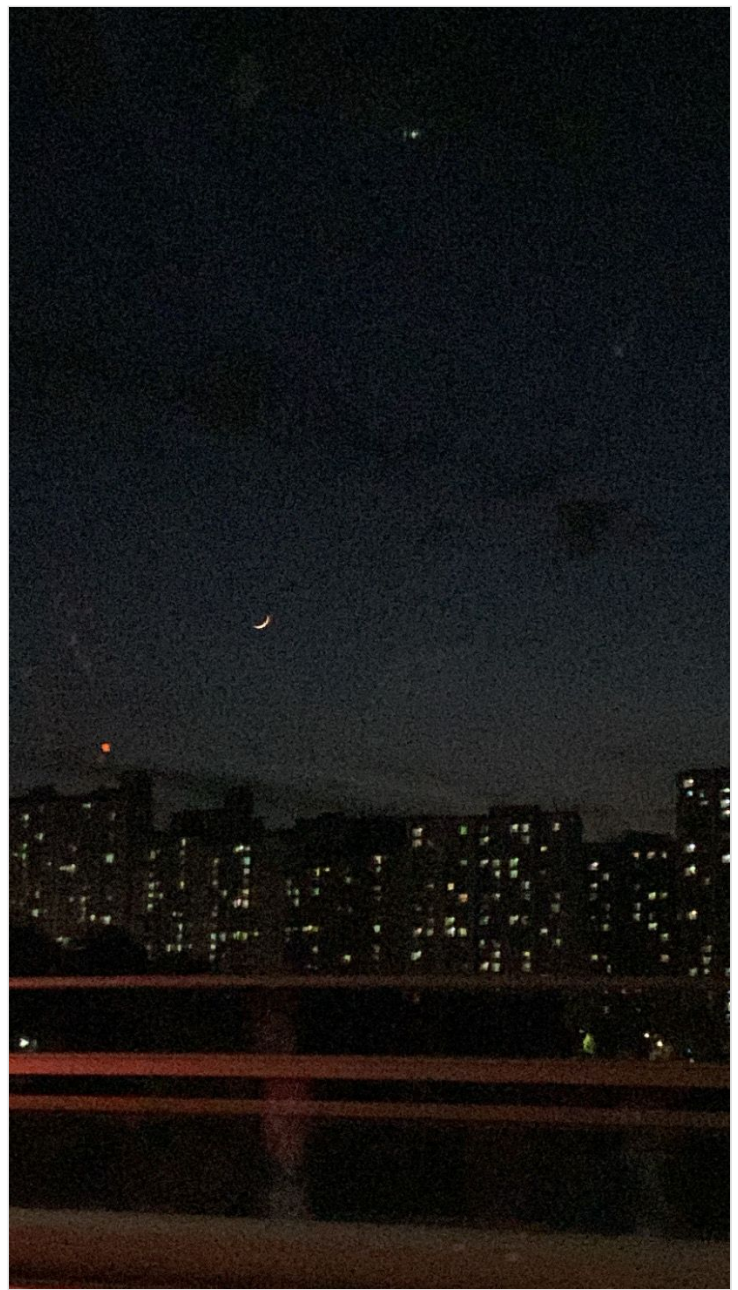
취소내역

## 1612 장영주

어두운 밤하늘

수많은 불빛 속 더 환하게 빛나는 불 하나

장영주 - 달 🌕



## 1619최승민

고요한 밤 안개가 짙는다

가로등에 안개가 보이면서

시간이 멈춘거 같다.

-안개- 최승민





## 1611임서영

["희" 비교차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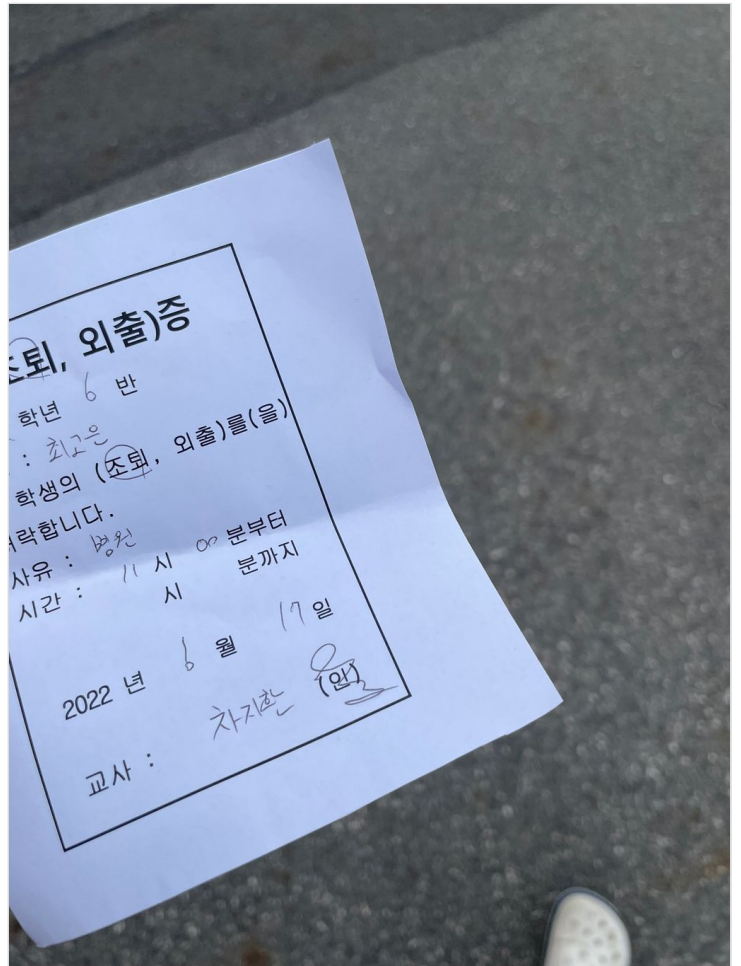
납작한 A4종이 인 줄 알았는데  
살아움직이다니



## 최고은

너무힘들다 집가고싶다

## -최고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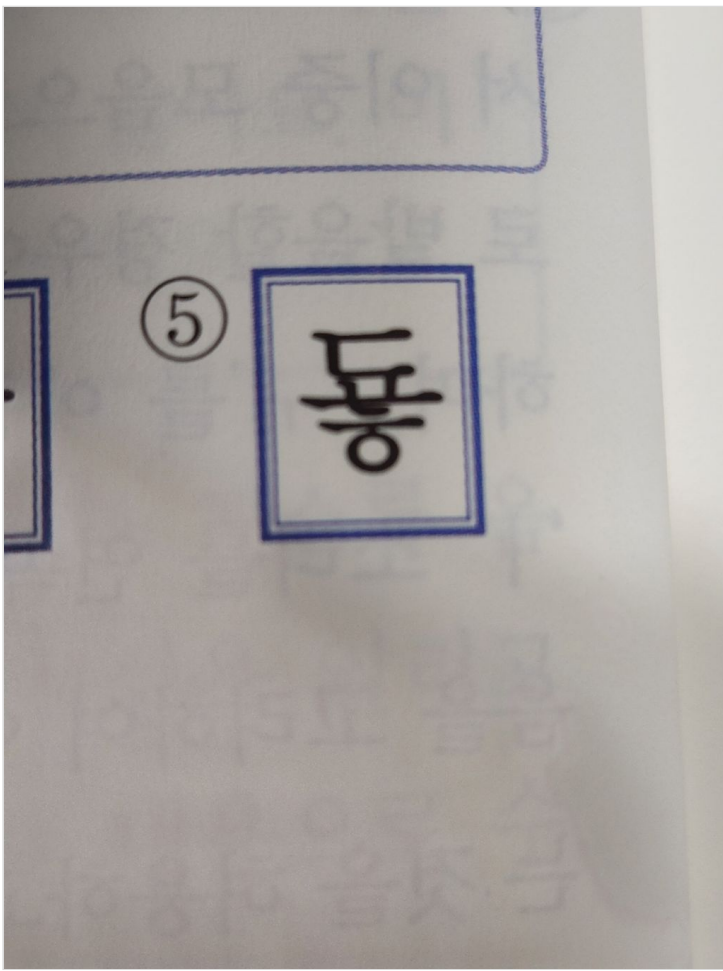
봐도봐도 기억나지 않는 단어  
하지만 외우는게 내 살 길

김승연 - 단어



국어는 365일 하루종일 보고 듣고 배우도  
정감이 가질 않는다.

권혁현 [0개 국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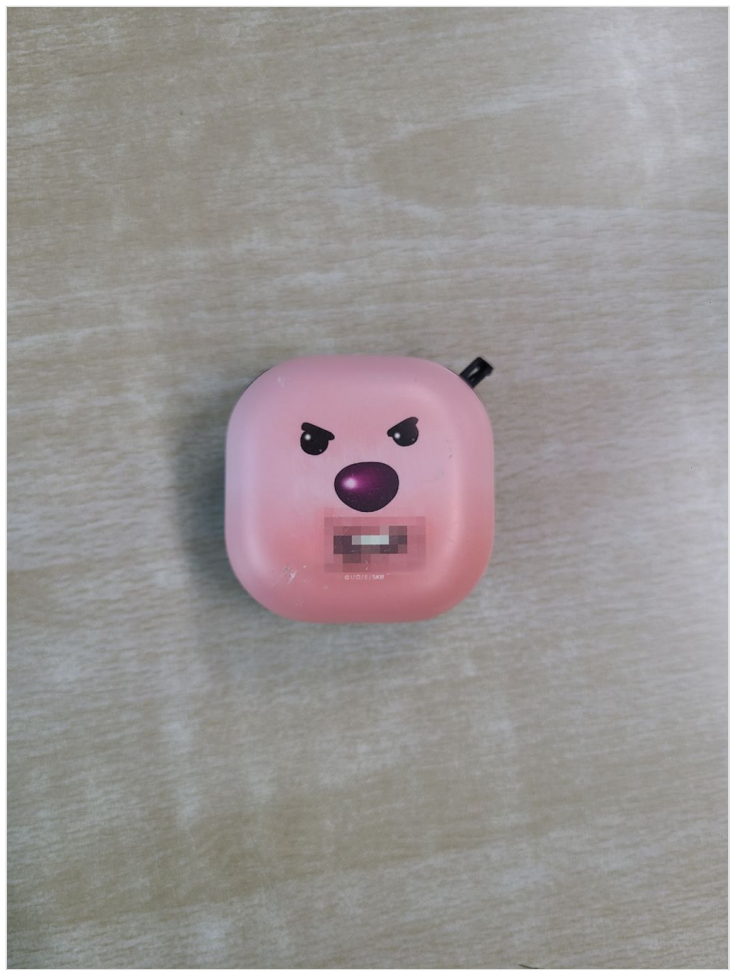


## 1604 설효성

어느새 산지도 4달이 지났는데  
흠집 안생기게 하겠다고 다짐한게  
옛그제 같은데 내가 자꾸 떨어트려서 미안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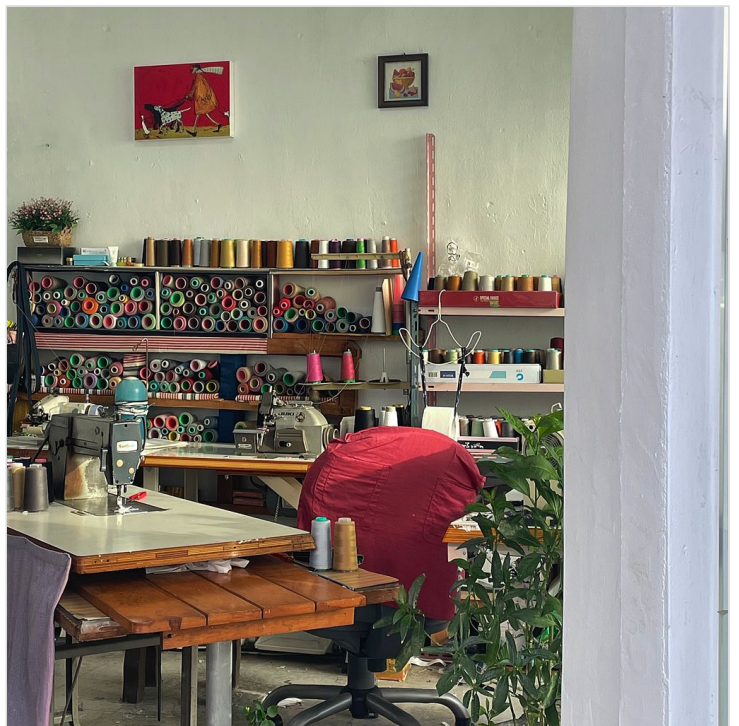
-설효성(루피)

..



## 육수민

<5시>  
빛까지 왠지 모를 포근함  
익숙한듯 익숙하지 않은 공간



## 원지선

빵은 맛있어  
맛있으면 빵  
빵이면 맛있어

원지선 - 맛있으면



## 매력적인 뒤탈

너에 토실토실한 뒤탈  
뒤탈도 매력적이지만 앞에도 봐줘ㅠ  
저 궁뎡이쪽을 자세히보면 짜리뎡뎡히 숨겨진 꼬리  
-송치예-



## 유은상

이 물고기는 누군가와 닮았다.  
통통한 물고기 하며  
돼지 같은 물고기  
수족관의 수조에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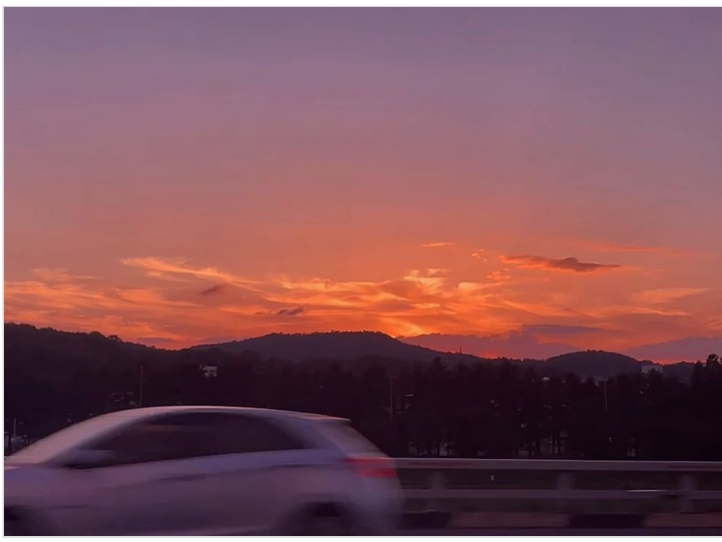
유은상- (돼지 물고기)



## 7반

불타는 하늘  
내 마음도 하늘처럼 불타오르네

-황원희 [불타는 하늘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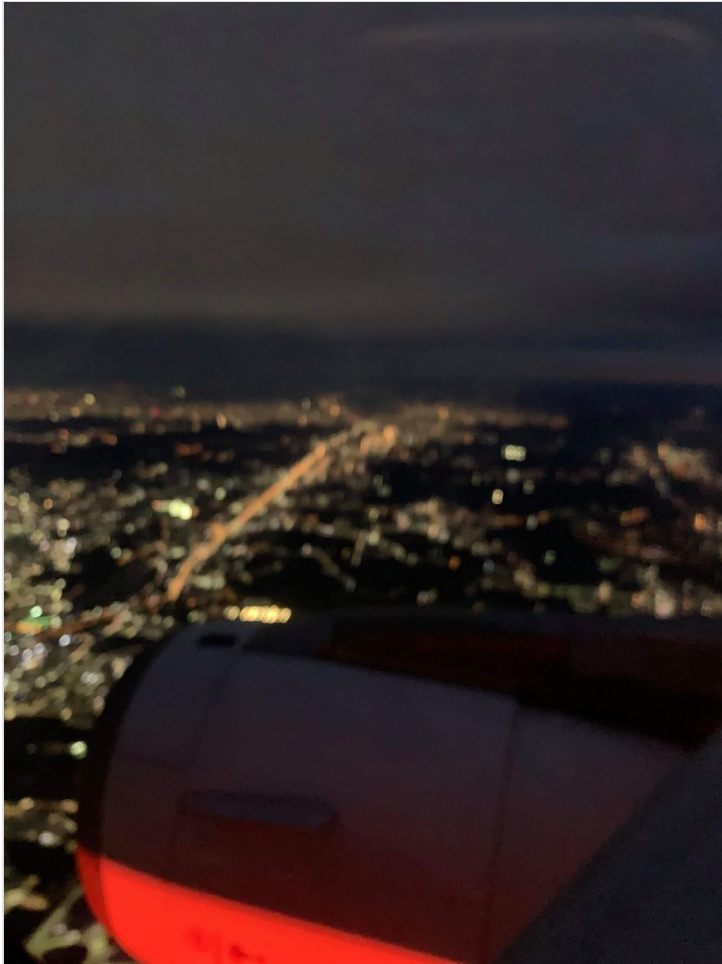
비행기가 활주로를 통해 날아가는 것 처럼  
나도 나의 길을 통해 날아 갈 것이다

정효원 (활주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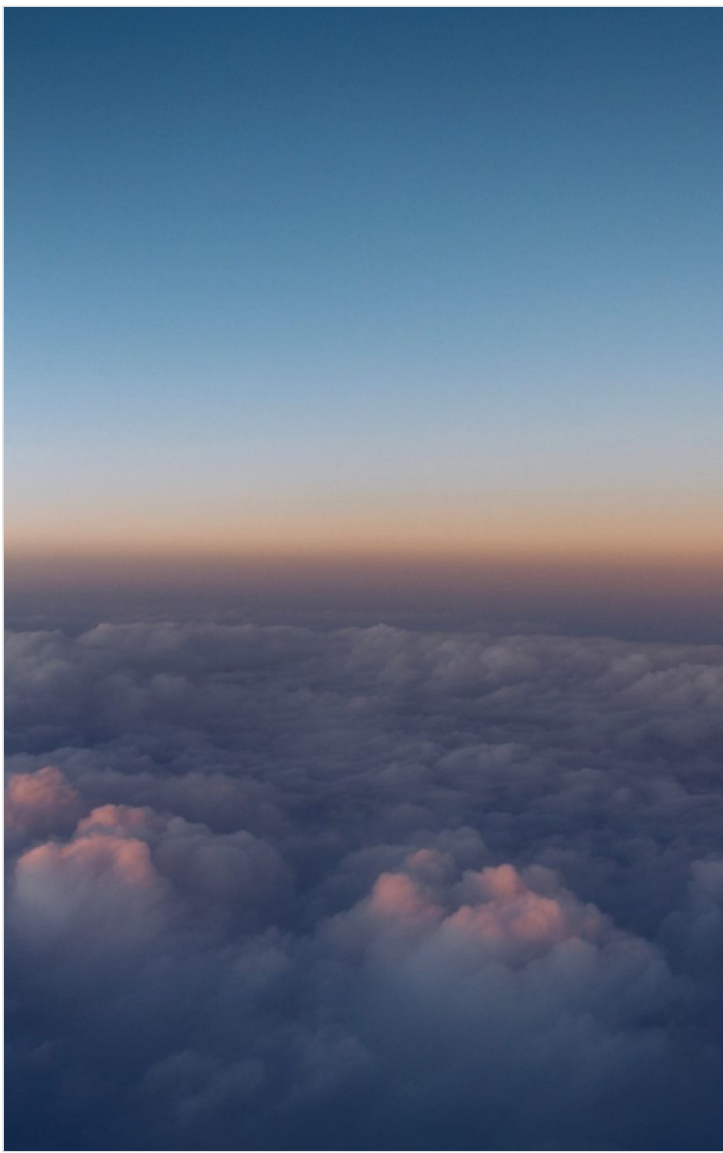
포근한 이불처럼 내마음도 포근해 진다  
계속 생각나게 하는 새벽의 솜사탕

구름위에서 (안초희)



살짝 빼꼼한 발  
너도 찍히고 싶었던거니?

금태양 (실수로 찍힌사진)



## 정가인

어둠을 밝히는 것이 나의일이다  
침흑같은 어둠속 무서움을 없애주는일  
나는 오늘도 이길을 비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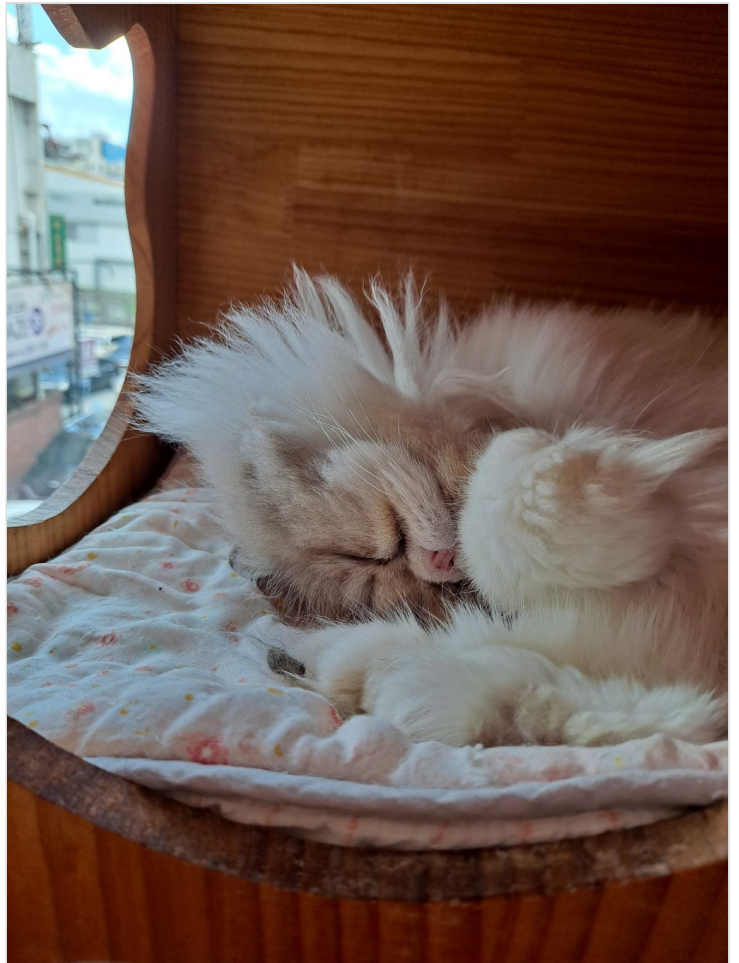
정가인 (가로등)



## 오서영

맨날맨날이 방학인 고양이  
나도 고양이고 싶다

오서영-<고양이>



## 1713 이푸른

반짝이는 너의 눈  
세상이 널 바라보는 눈도 반짝였으면 좋겠다

-참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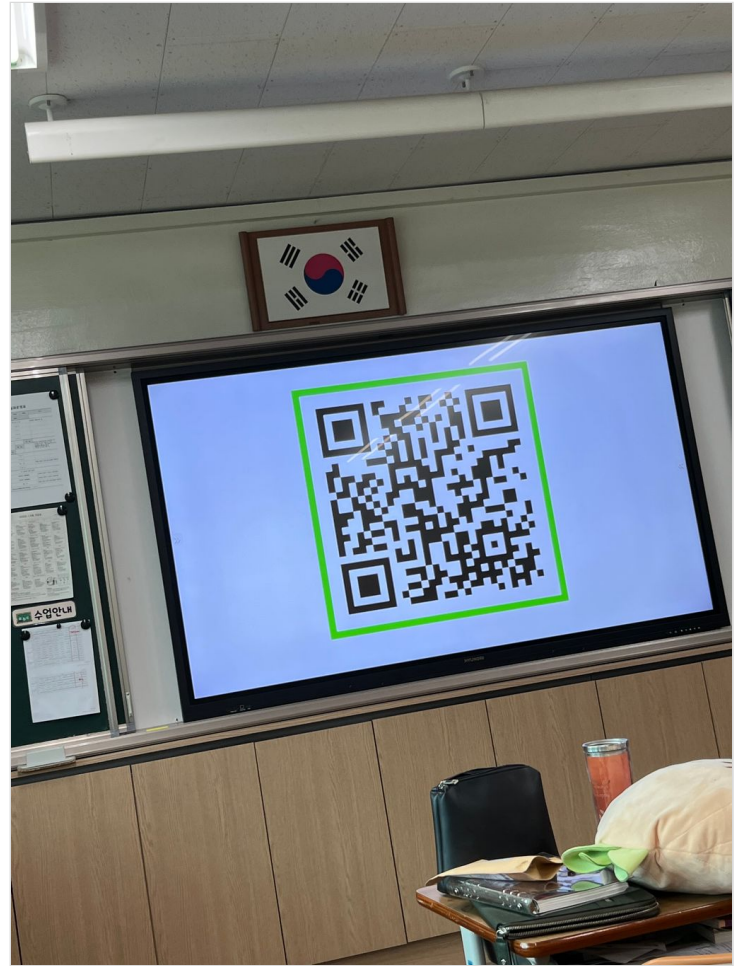
## 이기주

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 
혁수는 떠내려가서 안경을 남긴다  
이기주 -잘가라-



## 1707 라호찬

모양은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역할은 다른 큐알코드



## 8반

---

\*\*\*\*\*